

의사들의 고뇌



글·김완목
매일경제 과학기술부 차장

“한국에는 고객이 바라는 진정한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집단이 부족하다.” 미국에서 특허변호사 생활을 하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의 말을 빌리면 미국에서의 특허변호사는 말 그대로 법에 관한 지식은 물론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게 갖춘 전문가라고 한다. 특허변호사는 이 공계 대학을 나와 로스쿨 과정을 거쳐 다시 변리사시험에 합격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허변호사는 미국 전체 변호사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들 전문가들이 곳곳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분야의 전문가로 변호사와 변리사를 들 수 있는데 ‘반쪽 전문가’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변리사는 이공계 출신으로 기술은 잘 알지만 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는 법대 출신으로 법은 잘 알지만 기술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이들은 특하면 영역다툼을 벌인다.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젓밥’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다툼을 벌이기 일쑤다.

최근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문제가 도마 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서울대, 연세대가 여전히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대하고 고려대는 당초 반대 입장에서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결국 2(예과)+4(본과)의 기존 의과대학 체제와 4(학부)+4(대학원)의 새로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동거하는 시스템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런 동거체제는 현재로서는 50대50 정도로서 어쩌면 『황금분할』 시스템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사실 기존 의과대학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와, 새로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려는 의도 모두 각각 충분한 일리가 있는 듯하다.

기존 의과대학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기존 체제에서 오히려 젊고 유능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었고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듯하다. 오히려 성급한 전환은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기대했던 의료선진화 효과도 거두지 못하며 의료체제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새로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미래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의료인들이 발전적으로 습득하고 실천적으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복합교육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 입장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모두 맞는 듯 하다. 오히려 성급하게 한 쪽의 주장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시스템 변화를 몰고 가는 것 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동거체제를 유지하면서 검증을 거쳐 가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현재의 의과대학과 의학대학원의 동거체제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 는 지극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어정쩡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안목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시간을 두고 양립하면서 검증해가는 작업이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한 의약분업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은 반듯하게 보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생활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의료서비스 역시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 많은 논쟁을 거치고 실험을 거쳤지만 양·한방 체제가 어정쩡하게 동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국민들은 이에 대해 크게 불편을 느끼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고 안전하며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떠나서 의료산업의 측면에서는 좀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한 의료인의 말이다.

“그리 머지 않아 생명공학과 나노과학을 바탕으로 한 의료혁명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시대에 병원은 그 중심에 설 것이고 의료인은 임상·의학에 대한 지식은 물론 생명공학, 나노공학, 정보통신 등 첨단과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황 교수는 그 연구결과를 실제로 사람의 치료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이 산을 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줄기세포를 특정 세포로 분화해 환자에 적용하고 부작용을 없애며 신약으로 개발하는 열쇠를 얻기까지는 의료인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소리로 들린다.

실제로 황우석 박사팀은 이런 의료인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국제적인 드림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의료인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는 우리나라 의료산업과 생명공학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러저래 의료인들에게 거는 기대는 큰 것 같다. 진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모습은 물론이고 그 두 어깨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크게 높이는 의료산업의 선구자로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 의과대학체제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을 둘러싼 다툼은 더 큰 발전을 위한 고뇌에 찬 논쟁과정인 아닐까 생각해 본다. **KHA**